

## 피아니스트 선율 Youl Sun

국내 신인 연주자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음악상-피아노부문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교와 음악성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선율은 난파음악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수리콩쿠르, 성정음악 콩쿠르, 이화경향콩쿠르, 국민일보-한세대 콩쿠르, 한국쇼팽콩쿠르, 영창콩쿠르 등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1위 및 폴로네이즈 상, 미국 E-Piano Junior Competition에서 2위와 슈베르트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선율은 지휘자 안토니 비트, 마사모 자네티, 마크 러셀 스미스, 이종기, 정주영, 홍석원 등과 호흡을 맞추었으며, KNIGA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북도립교향악단,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 예원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또한 일본 긴자 야마하홀, 롯데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IBK챔버홀, 영산아트홀, 계명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서울 야마하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 금호아트홀, 국제아트홀, 신한아트홀 등에서 무대를 가졌으며, 2021 경기피아노페스티벌, Yamaha Rising Pianist Concert, 최인아 책방콘서트, 아트엠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금호영재콘서트, 더하우스콘서트 클로즈업시리즈와 줄라이페스티벌, 경기도문화의전당(현 경기아트센터)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 디스커버리 콘서트, NWA Young Pianist Concert Series 2019, KNUA 베토벤 250th 'Strum und Drang', 2019-2020 국제아트홀시리즈 등 독주회를 비롯한 연주를 진행하였다.

선율은 다채로운 레퍼토리 연구와 연주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섬세한 터치와 고도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연주력과 개성 있는 해석으로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선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였으며, 2022년 서울 예술의전당 단독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